

“엄마의 꿈’ 엄마의 점시에 담았죠”



지금, 들녘에 유채꽃이 한창인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자리한 류미숙(56) 작가의 작업실은 오랫동안 식당으로 사용되던 주택이다. ‘청솔가든’이라는 간판이 아직도 붙어 있는, 작은 정원을 품고 있는 이곳에서 그녀는 매일 점시에 그림을 그린다. 청솔가든은 4년전 세상을 떠난 엄마가 50년간 운영하던 식당 전문점이었다. 맛깔스런 음식으로 소문이 나면서 식당은 언제나 북적거렸고, 그녀 역시 엄마 일손을 돕고는 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한달 후, 살림을 정리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점시와 밥그릇 등이었다. 망연자실해 있던 그녀는 식당을 운영하며 ‘밥 먹으러 오는 손님 생각’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엄마의 삶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아, 이게 엄마 흔적이구나. 엄마의 인생이 여기에 담겼고, 슬허하게 다녔던 손님들의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의 점시와 밥그릇에 그림을 시작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렸다. 마당에서 만나곤 했던 개구리와 날아들던 벌과 나비도 그렸다. 이어 점시를 캔버스에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손님들이 음식을 기다리며 즐기던 화투와 카드도 작품 소재가 됐다.

류 작가가 4년간의 작업 성과를 모아 ‘엄마의 밥상’을 주제로 개인전(6일~17일 전남도청갤러리 운선도 홀)을 연다. 전담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류 작가는 단체전과 아트페어 등에 참여하다 이번 첫 개인전을 열게 됐다. 곧바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서울 전시는 코로나 19로 연기됐지만, 대신 광주에서도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 가을께 개인전을 열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점시와 밥그릇에 안료를 안착시키는 과정이나, 점시를 캔버스에 붙이는 과정에서 슬한 시형작을 거쳤다.

“초창기에는 점시에 물감이 잘 붙지 않아 고생이 많았어요. 본의 아니게 다양한 재료 실험을 한 셈이었죠. 그림을 그린 점시를 캔버스에 붙이는 과정은 더 힘들었죠. 잘 붙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작업실에 와 보면 그릇이 뒤집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이 과정이 힘이 많이 들어가 여가 생활 날이 없었죠.”

작품에 담긴 건 화사한 꽃과 나비, 벌 등과 더불어 ‘엄마의 꿈’이다. 암벽타기, 패러글라이딩,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산 등 자연과 함께 등장한다. 모두 엄마가 꿈꿨던 것들이다. 색깔은 화려하기 그지 없다. 화사한 색깔을 좋아했던 엄마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다.

“동네가 엄마 여행지였고, 이런 새벽이면 나가 산나물을 뜯어와 음식을 만들고는 했죠. 손님들 격정에 식당을 떠난적이 거의 없던 엄마가 TV에 소개되는 암벽타기 장면 등을 보며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곳 저곳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시구요. 그게 늘 마음에 남아서 그림 속에서나마 다 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손님들을 모두 아들 딸처럼 생각했죠. 손님들도 식당에 들어올 때면 ‘엄마’ 하고 들어오곤 했어요.”

작품에 사용한 점시는 한 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상황을 표현한다. 그 점시를 캔버스에 붙여 ‘세상 밖으로’ 나간 엄마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 처음 작품을 선보인 것은 지난해 광주아트페



‘엄마의 꿈’

어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서 ‘자신의 엄마’, ‘그리운 누군가’를 발견하고 공감을 표시해 줬다.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엄마 생각이 났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구나 조금 자신감도 생겼죠. 앞으로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가 닿는다면 오래된 음식점의 점시 등을 재료로 삼아 그 식당과 사람들의 스토리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다. 수십년 세월을 묵묵히 운영해온 식당이라면 엄마의 흔적처럼, 그 곳에는 분명 세상은 이야기, 사람사는 이야기가 담겨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에 허윤정 교수 선임

허윤정 서울대 국악과 교수가 2020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에 선임됐다. 아시아문화원은 허교수를 올해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에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문화재단 거문고 산조 이수자인 허예술감독은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월드뮤직 그룹 ‘블랙스트링’의 리더이며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북촌창우극장 음악감독, 북촌우리음악축제 예술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허 예술감독은 “ACC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올해 11회째를 맞는 축제인 만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광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은 오는 8월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외 14여개 팀의 월드뮤직아티스트 초청 공연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티스트들의 공연, 아티스트 토크,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엄마의 밥상’

류미숙 작가 첫 개인전

6일~17일, 전남도청 갤러리

50년 식당 운영 엄마의 인생 흔적

광주 오래된 식당 이야기도 담고싶어



시인 오늘 ‘내 애인은 그라나다에 산다’ 시산맥작품상

오늘(사진) 시인이 제10회 시산맥작품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내 애인은 그라나다에 산다’이며 상금 300만원.

시산맥작품상은 지난 한 해 기간 ‘시산맥’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오늘 시인의 작품은 9편의 후보작 중 선정됐다. 심사는 오현정 시인과 정윤천 시인, 안차에 시인이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오늘 시인 작품에 대해 “지금 여기와 그라나다 사이의 불화,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의 불화, 슬픔과 광기 사이의 불화를 소리와 색채, 외래어와 고어(古語), 입말과 관념어 등을 넘나들며 매끄럽게 직조해 신비로운 시편을 완성했다”고 평했다.

오늘 시인은 한양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2006년 계간 ‘서시’로 등단했다. 아르크창작기금을 받아 시집 ‘나비아, 나야’를 출간했다.



매 등단과 수상 및 2020년 시산맥 신인문학상 수상자 한상신 시인에 대한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대 ‘목일신 동시·동요대회 우수작 동요곡집’ 발간

동요 ‘자전거’를 만든 고흥 출신 목일신 작가를 기리는 ‘목일신 동시대회 및 동요대회’ 우수작을 담은 동요곡집이 발간됐다.

조선대는 5일 김지현 교수(사범대학 음악교육과)팀이 고흥군이 지원하고 (사)목일신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목일신 동시대회 우수작 창작 동요 용역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동요곡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작곡가 김현욱·민경훈·박수진·박은영·송지나·신동민·윤명원·성용원·조치노 등과 뮤지컬 작곡 및 제작자 손민해(조선대 영문과)·김민정(조선대 대학원 음악학과) 졸업생, 중등학교 음악교사이자 작곡가인 김정태·이기찬·홍현주·이희웅, 초등학교 교사이자 작곡가인 오남훈·김명진 등이 참여했다. 또 KBS 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 OST 공모전에 입상한 이다희 학생(조선대 음



악교육과 2학년)이 최연소 작곡가로 참여했으며 조선대학부와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밖에도 조선대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국송이·김유진 학생이 편곡과 창작을 비롯한 음반 제작의 전 과정을 맡아 진행했다.

완성된 동요는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지도교사 홍기승), 광주살레시오초등학교(지도교사 정종민·박해리), 광주송원초등학교(지도교사 김지연),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 최준영·보컬 지도 김아라) 소속 합창단원들이 불렀다.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교보 손글씨 2019’ 무료 배포

0123456789

마음으로 적다

교보문고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교보 손글씨 2019’ 서체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교보 손글씨 2019 서체는 작년 제5회 교보손글씨 대회에 응모한 6298점 가운데 아동부문 으뜸상을 수상한 12살 어린이의 손글씨다.

이번 서체는 윤디자인그룹이 제작에 참여해 약 3개월간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탄생했다. 손글씨 분석을 통해 어린이의 꾸밈없고 생기 있는 특징을 최대한 살려, 디지털 서체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독성과 판독성을 보완했다.

한편 서체는 교보문고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쇄물, 웹, 모바일, 광고물, 영상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